

##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Youth Drinking Using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Eun-ju Kim\*, Sung-a Bang\*\*, Eun-sug Seo\*\*

\*Ph.D, Department of Addiction Rehabilitation With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Time Lecture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Ph.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drinking behavior of adolescents. Based on this, it aims to suggest the practical and policy measures to prevent the drinking behavior of adolescents and to mediate / reduce them. We used binomial logistic analysis as an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individual factors affecting alcohol drinking were gender, smoking experience over the past year, sexual satisfaction, cyber delinquency, self-esteem, parental abuse, peer as family factors. Peer trus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ttachment factors, and school adaptation factors were not found to be associated with alcohol drinking in adolescents. This suggests that multilateral efforts such as individuals, families, and communities are needed to mediate and reduce the drinking behavior of adolescents.

▶ **Key words:** Youth, Drinking, Binomial Logistics, Drinking Factors, Drinking Alcohol prevention

###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S)의 중1 패널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음주행위를 예방하고 중재·감소를 위한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 청소년의 음주에 영향을 주는 개인요인으로 성별, 지난 1년간 흡연경험, 성적만족도, 사이버 비행, 자아존중감, 가정요인으로는 부모학대, 또래에 착요인으로는 또래신뢰가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으며 학교적응 요인은 청소년의 음주와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들의 음주행위를 중재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주제어:** 청소년, 음주,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음주영향요인, 음주행위예방

- 
- First Author: Eun-ju Kim, Corresponding Author: Sung-a Bang
  - \*Eun-ju Kim (mmargarita@hanmail.net). Department of Addiction Rehabilitation With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 \*\*Sung-a Bang (bsaep@hanmail.ne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 \*\*Eun-sug Seo (esseo@chosun.ac.k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 Received: 2019. 10. 04, Revised: 2019. 10. 18, Accepted: 2019. 10. 18.

## I. Introduction

청소년 음주행위의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첫 음주연령은 13세이며 청소년 음주자는 16.9%에 달한다[1]. 질병관리본부(2018)의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결과, 청소년의 평생 음주 경험률은 40.2%로 남학생이 44%, 여학생이 36.1%로 성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음주습관은 성인기로 이어져 2016년 성인남성의 21.2%는 고위험 음주자로 분류되고 있다. 더구나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 2명 중 1명 이상은 한 번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위험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9조 4500억 원으로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많으며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2]. 청소년 음주는 중요한 발달단계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에 저해되며 성인기 이후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는 위험이 따른다. 또한 청소년들의 음주행위는 더 나아가 본드나 가스, 마약류까지 손을 대는 심각한 상황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3]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음주행위에 주목하고자 한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들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하다. 먼저 연령, 체형, 개인병력, 부모병력, 행동장애, 뇌파와 같은 생물학적 변인과, 정신건강, 충동, 지능, 공격성, 우울, 불안, 정서장애, 반사회적 성향 등의 성격, 자아, 가치관, 심리학적 변인, 낙인, 부적응, 사회화 등의 사회심리학적 변인, 학교, 친구, 가족, 사회 환경 등의 사회학적인 변인들이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 중에서 Akers의 사회학습이론에 주목하고자 한다.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은 범죄행동과 비행은 차별적 강화, 차별적 접촉, 태도, 모방이라는 4개의 변인이 상호작용하는 학습과정을 통하여 습득이 되고 유지가 되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은 행동으로 설명한다[4]. 따라서 본 연구는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을 근거로 청소년들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성별, 흡연, 사이버비행, 성적만족도, 자아존중감, 부모학대, 또래신뢰 등의 사회심리학적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들의 음주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음주를 시작하는 연령이 낮을수록 음주량과 빈도가 증가하고, 그들이 성인기의 알코올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5][6]. 또한 청소년음주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으로 개인요인, 가족요인, 환경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7]와 음주와 흡연, 그리고 음주와 비행의 상관성을 밝혀낸 연구[8][9], 청소년의 음주행위가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10]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영향요인들의 범주가 거시적이거나, 음주와

비행, 음주와 자살 등의 관계성만을 밝혀온 한계가 있다. 청소년 음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음주관련 요인과 그 중에서도 세부적인 요인들이 무엇인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 흡연, 사이버비행, 성적만족도, 자아존중감, 부모학대, 또래신뢰 등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올바른 청소년 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약물사용의 예방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실천적 정책적 개입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청소년 음주는 신체적·심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비행행동으로 가는 출구(gateway)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 각층의 다양한 예방과 중재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들의 음주 행위가 규제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지속적인 행동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로 확산될 위험에 처해있는 이 시점에 본 연구는 실질적인 방법과 실천영역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 II. Preliminaries

### 1. Analytical Objects and Data

#### 1.1 Analytical Objects

청소년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이하, KCYS)」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KCYS는 2010년에 전국 초1, 초4, 중1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패널표본으로(각 코호트 2,200여명) 2016년까지 매해 1회에 걸쳐 개인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추적하고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 본 연구는 KCYS의 2015년 중학교1학년 패널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 1.2 Analytical Data

##### 가. Dependent variable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비행의 연간 행동경험' 중 술 마시기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여부를 측정하는 변수이다. 이는 1년간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경우를 '1', 술을 마신 경험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측정한 이분형 변수이다.

##### 나. Independent variable

주요 독립변수로 개인요인, 가정요인, 또래애착 요인, 학교 적응 요인이 있다. 개인요인으로 성별, 흡연경험, 가정의 경제수준평가, 사이버비행경험, 성취도, 우울, 자아 존중감으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성 1, 여성은 0값을 부여하였다. 흡연

경험은 경험이 있음 1, 경험이 없음 0으로 구성하였으며,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학생의 주관적 평가인 '소득은 매우 잘사는 편'에 7점, '매우 못 사는 편'에 1점을 부여하여 평균을 내었다. 1년 동안의 사이버비행경험을 묻는 6개의 질문은 '경험이 있다'에 1, '경험이 없다'에 0값을 부여하여 평균을 내어 측정하였다. 전체 성적에 대한 만족도, 우울, 자아존중감은 1점에서 4점까지 부여하여 합산 후 평균을 내었다.

가정요인은 부모감독, 부모애정, 부모방임과 부모학대로 구성하였다. 그 중 부모감독은 총 3문항으로 '내가 신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돌아올지 알고 계신다'로 구성되었다. 부모애정은 모두 4문항으로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로 구성되었으며, 부모의 방임은 모두 4문항으로,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 보신다', '다른 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 하신다',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로 구성되었다. 부모의 학대를 묻는 문항은 4문항으로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요인은 모두 '매우 그렇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두었으며 평균값을 내어 사용하였다.

또래애착 요인으로는 의사소통, 신뢰, 소외로 구성되었으며 또래 의사소통은 총3문항으로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준다', 로 구성되었다. 신뢰를 묻는 질문도 총3문항으로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로 구성하였다. 소외를 묻는 문항도 모두 3문으로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로 구성하였다. 친구요인 또한 '모두 매우 그렇다'에 4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는 1점을 두었으며 평균값을 내어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 요인으로 학교규칙과 교우관계, 교사관계로 구성하였다. 학교규칙은 총 5문항으로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학급당번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

한다',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로 구성하였다. 교우관계는 총 5문항으로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 한다',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준다',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친구가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로 구성되어있다. 교사관계는 총 6문항으로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졸업한 다음에도 담임선생님을 찾아 뵙고 싶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로 구성하였다. 학교적응요인은 '매우 그렇다'에 4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는 1점을 두었으며 평균값을 내어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관한 설명은 <표 1>로 제시하였다.

Table 1. Research Variable

Variables		question	Explanation
Dependent variable	Drinking	Drinking experience over the past year	have = 1 none = 0
	Independent variable		
Individual factor	gender	gender	man = 1, female = 0
	Smoking experience	Smoking experience over the last year	have = 1 none = 0
	Economic level evaluation	Assessing Family Economic Levels	Live very well = 7 Live well = 6 A little bit better = 5 Medium (medium) level = 4 A little bit buy = 3 Cannot buy = 2 Very poor live = 1
	Cyber Flight	Posting false information, illegal software download, illegal use of social security numbers, hacking, violent language in chat / bulletin	have = 1 none = 0
	Grade Satisfaction	Overall grade satisfaction	Very satisfied = 4 Satisfied = 3 Not satisfied = 2 Not satisfied at all = 1
	depressed	Cheer up, unhappy / depressed, worried, wanting to die, crying. Interest, interest, hard work	Very much = 4 That's it = 3 It is not so = 2 Not at all = 1 Average
Family Factor	Self-esteem	Satisfaction, useless people 1) Advantages, work done, no pride 2), feeling useful 3) valued, respectful, loser 4) competence	Very much = 4 That's it = 3 It is not so = 2 Not at all = 1 Average
	Parent supervision	Where to go after school How to spend time When to come in	Very much = 4 That's it = 3 It is not so = 2 Not at all = 1 Average

	Parental love	Respect, affection, courage, praise	Very much = 4 That's it = 3 It is not so = 2 Not at all = 1 Average
	Parental neglect	I care about me, care and questions about school life, cleanliness and treatment	Very much = 4 That's it = 3 It is not so = 2 Not at all = 1 Average
	Parental abuse	Badly struck, beaten, wounded or bruised, abuse,	Very much = 4 That's it = 3 It is not so = 2 Not at all = 1 Average
Peer attachment factor	Communication	Respect, Listening, Worry Sharing	Very much = 4 That's it = 3 It is not so = 2 Not at all = 1 Average
	trust	Understanding, Sharing Hearts, Belief	Very much = 4 That's it = 3 It is not so = 2 Not at all = 1 Average
	Isolation	I want to meet other friends Feeling lonely and alone Break with your friends	Very much = 4 That's it = 3 It is not so = 2 Not at all = 1 Average
School adaptation factor	School rules	Timely activities, quiet walking, keeping things valuable, keeping turns, Throwing garbage in the trash	Very much = 4 That's it = 3 It is not so = 2 Not at all = 1 Average
	Teacher relations	Greetings, comfort, niceness, kindness, To meet again as a teacher in the future, See you after graduation	Very much = 4 That's it = 3 It is not so = 2 Not at all = 1 Average
	Friendship	Well suited, apologize first, lend me supplies, interrupt my friends), friends who follow me	Very much = 4 That's it = 3 It is not so = 2 Not at all = 1 Average

주 1),2),3),4),5) Reverse Item Processing

## 2. Analysis method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 지난 1년간 음주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1,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이항 로지스틱 모형(Binary Logistic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III. Empirical Analysis

###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Table 2. Experience of alcohol-flight annual behavior

		frequency	percent	Effective percent	Cumulative percent
available	have	504	26.7	26.7	26.7
	none	1387	73.3	73.3	100.0
	all	1891	100.0	100.0	

## 2. Technical Statistics and Correlation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Table 4]와 같다. 먼저 기술통계 분석 결과로 자료의 정규성은 7보다 작고 20보다 작게 나타나 변수들의 분포가 정규성을 확보하고 있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 담배( $r=.405$ ), 사이버비행( $r=1.22$ ), 부모감독( $r=.111$ ), 성적만족도( $r=.097$ )는 음주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담배, 사이버비행, 부모감독, 성적만족도가 높을수록 음주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 $r=-.069$ ), 또래 신뢰( $r=-.058$ )는 음주와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또래신뢰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음주와 낮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공선성이 .80을 넘는 상관계수는 확인되지 않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ll(N=1981)		male(N=959)		female(N=932)	
	Average	Standard Devi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Alcohol-Flight	1.73	.442	1.62	.486	1.85	.355
Smoking experience	1.90	.301	1.82	.384	1.98	.141
Economic level evaluation	4.0227	.88252	4.0250	.94714	4.0204	.81118
Cyber Flight	1.9732	.07867	1.9618	.09381	1.9850	.05688
Grade Satisfaction	2.7703	.57801	2.7640	.60742	2.7768	.54635
depressed	1.8670	.54282	1.7803	.53940	1.9562	.53204
Self-esteem	2.5439	.25433	2.5489	.27863	2.5387	.22666
Parent supervision	3.1005	.56501	3.0476	.57810	3.1549	.54621
Parental love	3.0320	.54321	3.0271	.53704	3.0370	.54973
Parental neglect	3.0957	.49578	3.0946	.50967	3.0968	.48134
Parental abuse	1.5945	.59713	1.6408	.61577	1.5469	.57378
Peer communication	3.1264	.46935	3.1005	.50259	3.1531	.43113
Peer trust	3.1854	.52513	3.2009	.54080	3.1695	.50831
Peer alienation	1.9774	.63437	1.9979	.66317	1.9564	.60294
School rules	3.0278	.49541	2.9587	.54352	3.0989	.42927
Teacher relations	2.9604	.59208	3.0071	.60509	2.9124	.57478
Friendship	2.8866	.33283	2.9095	.36218	2.8631	.29802

Table 4. correlation

	gender	alcohol	tobacco	Economic level evaluation	Cyber Flight	Grade Satisfaction	depressed	Ego Respect	Parent supervision	Parental Affection	parents Neglect	Parental abuse	Peer communication	Peer trust	Peer alienation	school rule	teacher relation	friend relation
gender	1																	
alcohol	.264**	1																
tobacco	.264**	.405**	1															
Economic level evaluation	-.003	.047*	.038	1														
Cyber Flight	.148**	.122**	.094**	.055*	1													
Grade Satisfaction	.011	.097**	.124**	.069**	.031	1												
depressed	.162**	-.038	-.035	-.172**	-.054*	-.212**	1											
Ego Respect	-.020	-.069**	-.025	.018	-.020	.121**	.183**	1										
Parent supervision	.095**	.111**	.130**	.141**	.049*	.199**	-.221**	.044	1									
Parental love	.009	.074**	.091**	.157**	-.003	.222**	-.303**	.065**	.448**	1								
Parental neglect	.002	.058*	.091**	.123**	.005	.249**	-.267**	.015	.447**	.575**	1							
Parental abuse	-.079**	-.005	-.053*	-.046*	.032	-.108**	.262**	.051*	-.209**	-.418**	-.297**	1						
Peer Communication	.056*	.015	-.014	.124**	.068**	.192**	-.255**	.081**	.322**	.365**	.403**	-.191**	1					
Peer trust	-.030	-.058*	-.049*	.080**	.002	.183**	-.298**	.085**	.244**	.317**	.347**	-.219**	.751**	1				
Peer Isolation	-.033	.014	.024	-.068**	.006	-.101**	.326**	.085**	-.134**	-.219**	-.255**	.398**	-.283**	-.369**	1			
school rule	.142**	.122**	.178**	.072**	.096**	.283**	-.132**	.114**	.311**	.193**	.278**	-.152**	.277**	.237**	-.156**	1		
teacher relation	-.080**	-.006	-.002	.036	.020	.300**	-.229**	.119**	.222**	.290**	.230**	-.071**	.342**	.371**	-.147**	.281**	1	
friend relation	.021	.008	.027	.091**	.073**	.243**	-.354**	.058*	.327**	.335**	.365**	-.287**	.544**	.536**	-.373**	.429**	.406**	1

\*\*Correlation 0.01 Significance level(Both sides).

\*. Correlation 0.05 Significance level(Both sides).

\* \*: p < .05, \*\*: < .01, \*\*\*: p < .001

### 3. Results

연간 술을 마신 비행행동경험을 예측변수로 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과 정확도를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Table 5]와 같다. [Table 5]는 중학교 1학년 패널을 활용하여 음주경험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Hosmer와

Lemeshow 검정결과, 카이제곱 12.012(p= .150)으로 음주경험을 예측하는 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의 정확성을 보면 음주 경험한 집단은 31.9%, 음주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은 96.7%로 분류되었으며, 전체적으로 79.4%의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Table 5. Model Verification and Classification Accuracy

Observed		prediction			
		Experience of alcohol-flight annual behavior		Classifi- cation accura- cy(%)	
		have	none		
1 단계	Experience of alcohol-flight annual behavior	have	161	343	31.9
		none	46	1341	96.7
Total percentage					79.4

a. Cutting value .500  
-2LL=1812.880  
r<sup>2</sup>= .265  
x<sup>2</sup>=12.029(df=8, p= .150)

\* \*: p < .05, \*\*: < .01, \*\*\*: p < .001

음주경험 여부에 대한 개인요인, 가정요인, 또래애착요인, 학교적응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Table 6]과 같다. 음주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된 변인은 성별, 담배경험 여부, 성적만족도, 사이버비행, 자아존중감, 부모학대, 또래신뢰로 나타났다. 그 중 성별, 자아존중감, 또래신뢰는 음주경험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배경험과, 성적만족도, 사이버비행과, 부모학대는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B=-.909, P=.000)은 음주경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학생의 음주경험이 여학생보다 2.48배(Exp(B)= .403) 높음을 알 수 있다. 흡연경험여부(B=2.284, P= .000)는 음주의 경험이 높을수록 함께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담배의 피운 경험이 1단위 증가할 때 음주의 경험 또한 9.814배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성적만족도는 음주경험 여부에 정적인 영향(B= .229, P=.037)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적만족도가 1단위 증가할 때 음주경험 여부 또한 1.258배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채팅/게시판 등에 일부러 거짓정보 올리기’,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사용하기’,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기’, ‘채팅하면서 성별이나 나이 속이기’, ‘다른 사람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하기’, ‘채팅/게시판 등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기’ 같은 사이버비행(B= 1.551, P = .024)은 음주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사이버 비행이 1단위 증가할 때 사이버 비행은 4.718배라는 높은 증가 수위를 보여주었다. 자아존중감(B= -.640, P= .008)은 음주경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음주경험은 1.89배(Exp(B)= .527) 적게 나타난다고 해석된다.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음주경험 여부와 관계 살피본 결과 부모학대(B= .253, P= .034)가 청소년의 음주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또래신뢰(B= -.492, P= .007)는 1단위 증가할 때 음주 경험은 1.63배(Exp(B)= .611)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Table 6.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Drinking Experience

	B	S.E.	Wald	Degrees of freedom	Significance	Exp(B)
Gender	-.909	.130	49.001	1	.000	.403
Smoking experience	2.284	.202	127.571	1	.000	9.814
Economic level evaluation	.050	.068	.551	1	.458	1.052
Cyber Flight	1.551	.687	5.095	1	.024	4.718
Grade Satisfaction	.229	.110	4.329	1	.037	1.258
depressed	-.240	.130	3.407	1	.065	.786
Self-esteem	-.640	.240	7.085	1	.008	.527
Parent supervision	.149	.124	1.433	1	.231	1.160
Parental love	.261	.148	3.114	1	.078	1.298
Parental neglect	-.053	.157	.114	1	.735	.948
Parental abuse	.253	.120	4.492	1	.034	1.288
Peer communication	.357	.200	3.190	1	.074	1.429
Peer trust	-.492	.181	7.374	1	.007	.611
Peer alienation	.011	.111	.009	1	.924	1.011
School rules	.198	.138	2.054	1	.152	1.219
Teacher relations	-.036	.116	.097	1	.755	.964
Friendship	-.263	.215	1.506	1	.220	.768
A constant term	-2.985	1.646	3.288	1	.070	.051

####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Akers의 사회학습이론 기초하여 청소년의 음주와 개인, 가정, 또래애착, 학교적응 요인과의 연관성을 확인하

기 위해 KCYS의 2015년 제6차년도 중학교1학년 패널자료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청소년의 음주에 영향을 주는 개인요인으로 성별, 지난 1년간 흡연경험, 성적만족도, 사이버 비행, 자아존중감, 가정요인으로는 부모학대, 또래애착요인으로는 또래신뢰가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으며 학교적응 요인은 청소년의 음주와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첫째, 성별요인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48배의 음주경험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처음 음주 경험연령은 남학생이 13세, 여학생이 13.7세로 여학생의 음주경험이 0.7세 늦고, 청소년의 문제음주율도 남학생은 9.1%, 여학생은 8.6%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흡연경험의 경우 음주와 가장 밀접하면서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흡연의 경험이 1단계 증가할수록 음주에 미치는 영향은 9.814배 증가하였다. 이는 '음주-흡연 폐해 연관성 분석 연구'[11]에서 발표한 흡연과 음주는 사교적(sociability)특성이 내재되어 있어[12] 두 물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심리적 강화(reinforcement)를 더욱 강화시켜 주는 효과를 주기 때문이라는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 셋째, 개인요인 중 사이버비행의 경우음주경험과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은 사이버비행이나 현실비행을 동반하여 나타날 확률이 높고 그 지속 기간도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난다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13]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성적만족도의 경우, 음주경험율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성적보다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성적에 대한 만족도이므로 학교 적응이나 부적응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성적에 관한 스스로의 만족감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음주 경험이 낮게 나타나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존감이 있는 경우, 합리적이며 주도적인 의사 결정력이 생기고, 부정적인 심리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고, 음주를 경험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극복한다[14]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넷째, 가정요인에서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음주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박덕숙(2002)[15]의 '신체적 학대보다는 언어적 학대나 부모의 방임이 있을 경우 공격성을 띠고 청소년기에 비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한 연구결과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다섯째, 또래애착요인 중 또래의 신뢰가 높을수록 음주경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다는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의 존재가 비행의 게이트웨이가 되는 음주의 경험으로부터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요인들 가운데 학교적응 요인은 청소년 음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학교 내에서 만나는 친구관계나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보다 청소년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또래관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음주예방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교육을 넘어서 청소년 동아리나 인터넷 등 사회연결망을 활용한 음주예방 및 홍보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흡연의 경험이 청소년 음주영향요인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음주와 흡연이 서로의 유발요인으로 상승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흡연행동의 증가는 음주행동의 증가로, 흡연행동의 감소는 음주행동의 감소로 동반 상승 또는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음주와 금연으로 인한 폐해 예방의 효과적인 정책적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예방프로그램과 통합적이고 다각적 차원에서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사용한 자료는 KCYS의 2015년 제6차년도 중학교1학년 자료이다. 이는 고등학생의 음주 경험 연령(13.9%)이 중학생의 음주경험(11.3%)보다 높고 [16], 청소년 음주자 중 중학교1학년(15.4%)의 위험음주율보다 고등학교3학년(60.3%)의 위험음주율[2]이 높다는 사실들을 고려할 때 중학교 1학년의 자료가 다양한 연령층의 청소년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 REFERENCES

- [1]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Jeonjuon Statistics. 2019.
- [2] Disease Control Division, Youth Health Behavior Online Survey. 2018.
- [3] Cheon Jung-Woong. Youth Problems and Protection. Seowon-Yang. 2017.
- [4] Akers, R. L., and Lee, G. A longitudinal test of social learning theory: Adolescent smoking. *Journal of drug issues*, 26(2), 317-343. 1996.
- [5] Windle, M. and Zucker, R. A.. Reducing underage and young adult drinking: how to address critical drinking problems during this developmental period. *Alcohol Research &Health*.. 2010.
- [6] Cho Hye-jung and Hwang Sung-dong.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Korean School-based Youth Drinking Prevention Program. *Youth Studies*, 23(3), 523-547. 2016.

- [7] Kim Soon-kyu and Kim Sook-kyung (2009). Analysis of Determinants of Adolescent Drinking. *Youth Studies*, 16(9), 105-124. 2009.
- [8] Kim Yong-Suk).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Drinking and Delinquency: Focusing on the Role of Common Factors.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18, 33-59. 2004.
- [9] Kim Young-mi.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Drinking and Smoking Simultaneously.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18, 33-59. 2005.
- [10] Yoon Myung-sook and Cho Hye-jung.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Juvenile Drinking Behavior on Suicide Thoughts. *Youth Welfare Research*, 13(3), 43-66. 2011.
- [11] Inje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drinking and smoking. 2018.
- [12] Room, R. Disabling the public interest: alcohol strategies and policies for England. *Addiction*, 99(9), 1083-1089. 2004.
- [13]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Youth Smoking and Drinking Status and Policy Measures. 2016.
- [14] An nam-Sun. The power of self-esteem that brings happiness. soul mate. 2011.
- [15] Park Deok-sook.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buse type and anxiety, aggressiveness and school adaptation.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2002.
- [16] Disease Control Division, Youth Health Behavior Online Survey. 2015.

## Authors



Eun-ju Kim Completed Ph.D. course in the Department of Addiction Rehabilitation With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in 2019.



Sung-a Bang received the Ph.D. from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in 2017. Dr. Bang is Time Lecture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practice, social

welfare policy, game addiction, Counseling Psychology. music



Eun-sug Seo is In the course of a Ph.D.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